

27년도 6월 모의고사

1. 독서

- #1. 인문: (가)(나) 민권
- #2. 사회: 정보 비대칭
- #3. 과학/기술: 라플라스 식

2. 문학

- #1. 현대소설
- #2. 현대시 수필 복합
- #3. 고전소설
- #4. 고전시가



정지환 | 국어강사 @amukorean

“만년 4등급에서 시작해 수능 국어 1등급(백분위 99%)까지 올라선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칩니다.”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 만년 4등급에서 18, 19년도 수능 1등급
- 22년도 수능 1등급 (백분위 99%)
- 국어 수업 7년차
- 오르비 북스 『문학 FOCUS』 (2026, 2027) 저자



27년도 6월

- 독서

● (가)(나) 민권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 이익(李穡)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 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

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民)에 주목하였다.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들의 인식 차이, (나)는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였다.
- ② (가)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의 견해를,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 ④ (가)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를, (나)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서술하였다.
- ⑤ (가)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를, (나)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였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층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노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록하였다.
- ②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하였다.
- ③ 양반이 노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약자로 여기는 태도를 반영하였다.
- ④ 노비의 애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였다.
- ⑤ 굳센 의지를 지닌 노비의 행동을 부각하면서도 노비가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6. ㉡, ㉢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② ㉡는, ㉢가 인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③ ㉡는,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④ ㉢는,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 ⑤ ㉢는,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겠군.

7. (나)의 '형평 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평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비판하였다.
- ②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③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
- ④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⑤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① <보기>의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나)의 김윤식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겠군.
- ②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는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겠군.
- ④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⑤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모두,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겠군.

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우리 반은 오래도록 염원하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② 학교는 학생회에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 등을 두고 있다.
- ③ 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
- ④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 ⑤ 그의 판단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706 (가)(나) 민권

글의 흐름을 통한 머릿속 축 설정

이 지문은 (가)와 (나)로 나뉜 복합 구성입니다. (가)는 조선 시대 노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익의 실학적 접근을 다루고 있고, (나)는 19세기 말 이후 근대적 민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법제상 신분 폐지 이후에도 차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형평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지문을 관통하는 축은 하나입니다. ‘신분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어떤 논리적 근거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 이 축 위에서 (가)의 양반들의 온정적 시선(한계) → 이익의 주장(보완)이 대조되고, (나)의 개화파 각 인물들의 민권 논의 → 법제상 조치 → 형평 운동으로의 전개가 통시적 흐름과 함께 이어집니다.

글의 큰 흐름은 ‘인식의 변화’이고, 그 변화를 추동하는 논리(조명, 천부 인권, 존엄과 평등)가 각 구획마다 주요 정보입니다. 세부적인 인물명, 사건 연도, 단체명은 선지화되면 복귀합니다.

(가)

→ 1문단

①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역접)**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예시)**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역접

- ▶ 노비의 이중적 지위를 제시합니다. ‘물적 성격’(상속·매매 가능)과 ‘부분적 권리’(재산권·소송권)가 공존한다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 ▶ ‘지녔지만’ 안에 역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뒷 부분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예시와 일반적인 서술을 연결하며 읽어봅시다.

②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연결)**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인과)**,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①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인과 # 추상과 구체

- ▶ ‘사회 변화 → 인식 변화 → 글로 구체화’ 이 인과의 연쇄가 이 문단 전체의 배경입니다.
- ▶ ①이 이후 문장 ③ ~ ⑦의 화제가 될겁니다. 끌어내려가서 연결하며 읽어봅시다.

③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④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분류①)** ⑤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분류②)**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⑥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분류③)**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⑦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② 두면서 **(분류④)**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역접)**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분류 # 완급조절

- ▶ 양반들의 시각이 제시됩니다. 네 가지 시각 모두 노비를 인정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신분 질서 자체는 흔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구조적 틀(분류)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입장 전부 양반들의 입장이고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남겨갑시다.

구조적 예측

- ▶ 한계가 존재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되는 입장이 제시될 겁니다.

→ 2문단

⑧ 이러한(연결)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역접) 실학자 ㉞ 이익(李瀼)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연결 # 역접

- ▶ ‘이러한 ~ 와 달리’를 통해 비교/대조하며 읽어 나갑시다. 1문단의 양반들(신분 질서 온존) vs 이익(다른 각도)이라는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저 둘의 차이를 나누는 기준을 파악합니다.

⑨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분류, 정의)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분류, 정의)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분류, 정의) 운명을 나누었다.
⑩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분류)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분류)

주요정보 vs 세부정보

- ▶ 이익의 주장이 제시되기 전에 개념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끼워넣어진 개념을 알아야 이 뒤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힘이 관여하는가의 여부’입니다.
- ▶ 운명 = 천명 / 성명 / 조명
여기서 주요 정보는 ‘조명’입니다. 성명과 조명은 세부정보로 판단하고 갑시다. 빈부·귀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익의 주장에 해당할 겁니다.

⑪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작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역접),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차이)

비교/대조 # 의문

- ▶ 이전 학자들: 조명 대상 = 왕·고관대작(한정) vs 이익: 조명 대상 = 노비 포함 모든 사람(확대)
- ▶ 이 확대가 이익의 주요 논지입니다. 1문단 양반들의 시각(신분 질서 온존)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그 의문을 갖고 내려갑시다.

→ 3문단

⑫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⑬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AX BO)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조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결과)

의문과 확인 # 주장 # 원인/결과

- ▶ 앞 문장의 조명(운명 변화)을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한 이익의 주장이 드러납니다.
- ▶ 이익은 세습을 부정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노비 매매와 세습을 금지(원인)하면 노비가 소멸(결과)한다는 인과적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⑭ 이처럼(연결)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부정)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재진술)

연결 # 재진술 # 완급조절

- ▶ ‘이처럼’을 보고 앞의 어떤 부분을 받아왔는지 파악합니다. ‘모두에게 기회 개방’이라는 이익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재진술되었기에 완급조절을 하며 빠르게 갑시다.

⑮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부정)> 것이었다. (정의)

- ▶ 이익이 생각하는 인간과 국가의 역할입니다. 개인은 스스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국가는 기반 보장만 할 뿐 결과 개입은 금지됩니다.
- ▶ 목적: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킴
수단: 조명(변화O)의 대상 확대 → 국가: 최소한의 기반 보장+결과 개입X = 모두에게 기회 개방

(나)

→ 1문단

①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인과)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화제 제시)

키워드 # 화제 제시

- ▶ (나)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서구 기본권 사상 유입 → 민권 논의 구체화' (가)와 다른 시대적 배경임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②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는 사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④ 유길준은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목적) 필요한 존재로 민(民)(수단)에 주목하였다.

통시

- ▶ 화제가 '유길준'으로 좁혀집니다. 그의 목적(근대 국민 국가 달성)과 수단(민에 주목)을 연결하며 읽어봅시다.
- ▶ '임오군란 이후', '급진 개화파' 등 세부 정보는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③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정의) 이외에(추가)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정의)가 있고,(분류)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조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정의 # 분류 # 필요/충분

- ▶ 민 (분류)
 - 천부 인권 (절대적)
 - 인위적 권리 (상대적)
- ▶ 두 권리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입니다.
- ▶ 법률의 제정, 시행 → 민권(천부 인권+인위적 권리) 보장
'필수적'이라는 표현에서 필요조건임을 파악합니다.
- ▶ **주요 정보:** 법 → 민권 → 국권

④ 하지만(역접)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인과) 교육받지 않으면(조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역접 # 조건과 분기

- ▶ '하지만'으로 앞 문장과 방향이 꺾입니다. 문장③에서 민의 권리를 강조하더니, 문장④에서는 민을 무지한 존재로 봅니다. 민권을 옹호하면서도 민을 불신하는 유길준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선처리 vs 역이해

- ▶ 여기서 잠깐 생각해봅시다.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기에 '민'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도출해야 합니다. 조건이 제시되고 거기서 분기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추론이 바로 되지 않았다면, 6번 문제의 ②번 선지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복귀해서 추론해야 합니다.

⑤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조건) 국권(國權)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⑥ 그리고(추가)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한정)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한정)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교/대조

- ▶ 새로운 인물 박영효가 등장합니다.
- ▶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며 갑시다. 둘 다 목적과 수단을 제시합니다.
 - 유길준: 수단(법률 제정·시행) → 목적(권리 보장)
 - 박영효: 수단(법을 통해서만 권리 존재, 법 준수) → 목적(권리 보호)
- ▶ ‘~만’이라는 한정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권리가 존재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 또한 박영효는 민권과 국권을 연결합니다. 민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권 수호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⑦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공포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역접)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인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⑧ 민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역접)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재진술)

역접 # 재진술

- ▶ 온건 개화파(김윤식)가 등장합니다. ‘지지하면서도’와 ‘정당하다’가 충돌하며 문장 ⑧에서 ‘양면적 태도’로 정리됩니다. 문장 ⑥은 문장 ⑦의 재진술입니다. 글쓰기가 직접 ‘양면적 태도’라고 규정해주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져가면 됩니다.
- ▶ 세 인물(유길준·박영효·온건 개화파) 모두 민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잡고 가면 됩니다.

→ 2문단

⑨ 민권에 관한 개화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인과)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역접) 노비는 잔존했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한계)

통시 # 역접 # 한계

- ▶ 1문단의 개화파 논의가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인과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 ▶ ‘하지만’으로 방향이 꺾입니다. ‘법제상 조치 ≠ 현실 차별 해소’라는 괴리를 처리하고 갑시다.

⑩ 이러한(연결) 상황에서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연결 # 보완

- ▶ ‘이러한 상황’은 문장 ⑨의 괴리(법제상 폐지 ≠ 현실)를 가리킵니다. 끌어내려가며 연결합니다.
- ▶ ‘독립 협회: 자유와 평등 = 하늘이 준 권리(천부 권리)’ 1문단 유길준의 ‘천부 인권’ 개념과 연결됩니다.
- ▶ 이 문단은 짧습니다. ‘법제상 조치의 한계 → 독립 협회의 비판’이라는 흐름만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 3문단

⑪ 일제 강점기에도(공통)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⑫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인과) 본격화되었고, 이후(동시)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동시 # 공통

- ▶ 시간 배경이 '일제 강점기'로 이동하며 '형평 운동'이 등장합니다.
- ▶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는 2문단의 괴리(법제상 폐지 ≠ 현실)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끌어내려가며 연결합니다.
- ▶ 형평 운동의 전개 과정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1923년 진주 형평사 조직 → 결합 → 전국화'의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⑬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정의)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정의)의 성격을 가졌다.

- ▶ 형평 운동의 성격
 - 인권 운동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 공동체 운동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

⑭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인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조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⑮ 그리고(추가)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목적)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목적)하고자 분투하였다.

- ▶ 도화선: 교육 차별(원인) → 교육 활동(결과)
- ▶ 형평 운동: 일상 실천 + 제도화

→ 4문단

⑩ 다른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수단)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인과)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인과)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

인과 # 통시

- ▶ 형평 운동 위축의 원인이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 내부 요인: 내부 분열과 갈등
 - 외부 요인: 일제의 억압
- ▶ 결과: 형평사 → 대동사 개칭 = 운동 본래의 성격 상실
'개칭'이라는 어휘를 몰랐어도,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와 연결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⑪ 하지만(역접)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역접

- ▶ '하지만'으로 역접이 제시됩니다.
위축되고 성격을 잃었지만, 이후 인권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의가 제시됩니다.
- ▶ 역접 뒤에 출제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이라는 표현이 (나) 전체의 결론이자 형평 운동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 ▶ 이 문장 하나로 (나) 전체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권 논의 구체화 → 법제상 조치 → 현실의 한계 → 형평 운동 → 이후 인권 운동으로 이어짐'이라는 큰 흐름이 완성됩니다.

4.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 정답해설

- ③ (가)는 양반들의 시각을 먼저 제시한 뒤, 실학자 이익이 노비 문제에 접근한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나)는 유길준·박영호·온건 개화파의 민권 논의부터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 독립 협회의 비판, 형평 운동의 전개와 결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비교/대조, 통시

(가)는 양반들의 시각과 이익의 시각을 대조하는 구조, (나)는 민권 논의의 역사적 전개를 통시적으로 서술하는 구조임을 파악했다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각 선지에서 말하는 중심 화제와 전개 방식이 지문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해설

- ① (가)에는 이익 외에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반들의 시각은 비판이 아닌 온정적 시선에 머물렀습니다.
- ② (나)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분 차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④ (나)에는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권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흐름이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 ⑤ (가)에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세부 내용은 지문으로!

■ 정답해설

- ② ㉠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양반들의 글입니다. 여기에는 양반들의 인식 변화가 구체화되어 있을 뿐,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공통점

문장 ③ ~ 문장 ⑦에서 양반들의 네 가지 시각이 분류되어 제시됩니다. 공통점을 파악하고 왔다면, 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선지에서는 어떤 요소를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 반의 관계가 존재하는 서술어나, 목적어에 집중합시다.

■ 오답해설

- ① 문장 ⑤에서 양반들은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③ 문장 ⑤에서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④ 문장 ⑦에서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며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분 질서는 노비가 애환을 겪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 ⑤ 문장 ⑥에서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6. 비판 문제는 입장부터 체크할 것!

■ 정답해설

- ① ㉑(이익)는 문장 ㉓에서 신분이 세습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㉒(유길준)는 문장 ㉕에서 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아 교육받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를 주장한 ㉑가 ㉒에게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무지한 존재로 간주)을 가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비교/대조

㉑(이익)와 ㉒(유길준)의 차이를 나누는 기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비판

비판이 성립하려면 비판하는 자(㉑)의 입장과 비판받는 자(㉒)의 입장이 지문의 내용에 모두 부합해야 하고, 비판의 방향성이 적절해야 합니다.

■ 오답해설

- ② ㉑는 문장 ㉕에서 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분기를 갈라서 반대 분기에 대한 추론을 해야 했습니다.
- ③ ㉑는 문장 ㉓, ㉔에서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민에 주목했으며, 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률 제정이라는 체제를 제시했으므로 체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㉑는 문장 ㉕에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㉑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 ⑤ ㉑는 문장 ㉑, ㉒에서 천명과 성명을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주요 정보는 바로 고를 것.

■ 정답해설

- ② (나)의 문장 ㉑에서 차별받던 백성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인권 운동)과 함께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활동(공동체 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정의

형평 운동이 지니는 두 가지 성격(인권 운동 + 공동체 운동)을 문장 단위에서 정확히 끊어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했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재진술

지문에 나타난 ‘인권 운동’과 ‘공동체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선지에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잘 재진술했는지 확인합니다.

■ 오답해설

- ① (나) 문장 ㉑에서 형평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교육 활동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도 소양을 갖춰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 한 것 입니다.
- ③ 문장 ㉑, ㉒에서 교육 활동이 펼쳐졌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제도화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문에 없습니다.
- ④ (나) 문장 ㉑에서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⑤ (나) 문장 ㉑, ㉒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경제적 부를 쌓은 백성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다고 했으므로 사회 운동가 단독으로 시작되었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8. <보기> 문제는 지문과 결부해서!

<보 기>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타고난 능력의 차이 인정, (나)의 김윤식과 연결!)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법→인권’ (나)의 박영효와 연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매매 가능한 대상 (가)의 노비와 연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자유 회복 강조 (나)의 독립 협회와 연결!)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개인의 노력으로 성취 (가)의 이익과 연결 시도, 그러나 사회 제도 변화 촉구와 는 다름)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정답해설

- ⑥ (가)의 이익은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구성원=개인)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 제도의 변화’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사회적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개인적 성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작가의 성취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주장과 근거의 층위 파악, 목적/수단

이익의 주장은 단순히 ‘노력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매매와 세습 금지’라는 거시적인 제도적 변화(조명)를 촉구하고 있음을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보기> 상황 적용, 바꿔치기(목적/수단)

<보기>의 구체적 사례(노예의 개인적 성취)와 지문의 사실(이익의 제도 개혁 요구)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⑥번 선지도 확인해 봅시다.

- 목적: 사회 제도의 변화
- 수단: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

■ 오답해설

- ① <보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가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나)의 김윤식(은건 개화파)은 문장 ⑥에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부림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주장은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 차이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② <보기>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가 문장 ⑦에서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고 한 주장은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③ (가)의 조선 시대 노비는 문장 ①에서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보기>의 노예 무역 대상이었던 노예와 지문의 노비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될 수 있는 수동적 객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나)의 독립 협회는 문장 ⑩에서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천부 인권)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를 비판했습니다. <보기>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 역시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합니다.

9. 어휘는 맥락.

■ 정답해설

- ④ 지문의 ㉠ 관심을 두면서에서 ‘두다’는 문맥상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가지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선지 ④의 나는 그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두고’ 역시 특정 대상을 향해 마음이나 생각을 가진다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으므로 가장 적절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책상 위에 책을 두고’ 등에서 쓰이는 ‘두고’는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는 뜻입니다.
- ②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등에서 쓰이는 ‘두고’는 직책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다는 뜻입니다.
- ③ ‘술하에 자녀를 두고’ 등에서 쓰이는 ‘두고’는 어떤 사람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지다는 뜻입니다.
- ⑤ ‘결과에 목적을 두고’ 등에서 쓰이는 ‘두고’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는 뜻입니다.

● 정보 비대칭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㉕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㉖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

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㉗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플랫폼과 인공 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고 있다.
-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11.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 ②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다.
- ③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 ④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1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본다.
- ②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 ③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되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④ ㉡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 ⑤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13. ㉠, ㉡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보 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①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②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 ⑤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았겠군.

📷 2706 정보 비대칭

글의 흐름을 통한 머릿속 축 설정

1문단에서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이를 온라인 상거래로 확장하며 정부 개입을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이 있음을 예고합니다. 3·4문단에서 그 두 입장을 본격적으로 대조하고, 5문단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 두 입장의 충돌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글의 큰 흐름은 '개념 제시 → 온라인으로 확장 → 두 입장 대조 → 실제 사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축은 하나입니다.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축 위에서 3·4문단의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5문단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각각 그 입장을 대변합니다.

구획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구획 1·2]는 정보 비대칭의 개념과 온라인으로의 확장을 다루는 배경 구획입니다. 이 구획에서는 역선택·생성물 표시 의무 등 개념 정의를 잡고, 세부 내용은 선지화되면 복귀하는 전략으로 처리합니다. [구획 3·4·5]는 두 입장의 대조가 본격화되는 주요 구획입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정부 개입 불가) vs 비판론(플랫폼 + 정부 공동 규제)이라는 대조를 머릿속에 넣고, 각 입장의 주요 근거와 결론을 넘겨가야 합니다. 실명확인 사건의 다수 의견·소수 의견은 이 축 위에서 어느 쪽이지만 연결하면 충분합니다.

→ 1문단

①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역접),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정의)에 처한다.

정의

- ▶ 이상적인 시장과 현실을 대비하며 '정보 비대칭'이라는 키워드를 던집니다. 정의가 나왔으니 이 개념이 앞으로 전개될 글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며 읽어 나갑시다.

②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정의)에 직면한다. (문제)

구조적 예측

-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인 '역선택'의 정의입니다.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으니 뒤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하는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목적)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수단)한다. (해결) ④ 예컨대(예시)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목적/수단과 문제/해결 # 연결(일반적인 서술과 구체적인 서술)

- ▶ 예측대로 문제(역선택)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 목적: 문제(정보 비대칭 상황) 해결
 - 수단: 정부의 개입(해결)
- ▶ 일반적인 서술(정부 개입)을 구체적인 예시(정보 제공 강제)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 2문단

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추가) 발생한다. ⑥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원인)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

정의 # 문제/해결

- ▶ 1문단의 오프라인/일반 경제에서 '온라인 상거래'로 범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사례로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AI 활용 허위 광고)을 제시합니다.

⑦ 이에 정부는 ②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해결)

문제/해결

- ▶ 1문단과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문제 발생 → 법에 근거한 정부의 강제 개입)이 반복됩니다. ②의 규제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을 의식적으로 처리해 둡시다.

⑧ 하지만(역점)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추가)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⑨ 이렇듯(연결)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재진술)

역점 # 추가

- ▶ '하지만'이 제시되며 새로운 주장이 펼쳐집니다. 현재 정부 개입 대상이 제한적인데, 이를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 '이렇듯'으로 앞 문장을 받아들인 후 앞 문장의 상황을 깔끔하게 요약해 줍니다.

⑩ 이 외에도(추가)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예측/확인

- ▶ 경제/상거래 영역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 영역으로 화제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된다고 예고했으니, 다음 문단부터는 이 두 입장을 분류하고 비교/대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3문단

⑪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목적)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수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주장)

예측/확인 #주장/근거

- ▶ 예측했던 첫 번째 입장,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입니다. 1문단의 완전경쟁시장과 궤를 같이하기에 각 입장을 연결하고 가야 합니다.
- ▶ '결정되어야 하며'에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잡아야 합니다. 진위나 가치 여부(목적)는 반드시 의견 간 경쟁(수단)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⑫ 이(연결)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시)

- ▶ ㉠의 이론을 적용한 미국의 예시입니다. '정부 개입 반대 = 기본권 보호 및 자율 규제'로 연결하고 납득합니다.

⑬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추가)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 우리나라의 사례도 추가됩니다. 이 두 예시는 모두 정부 개입보다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의 관점으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 4문단

⑭ ㉡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추가) 제기되었다. ⑮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조건)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반박)

예측/확인 #주장/근거

- ▶ 예측했던 두 번째 입장, 비판론이 등장했습니다. ㉠과 정면으로 대립하므로, 차이를 나누는 기준(경쟁의 가능 여부, 정부 개입 필요성)을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 ▶ 이는 ㉠이 전제했던 자율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입니다.

⑯ 또(추가) 허위·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문제) ⑰ 이러한(연결)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목적)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수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근거

- ▶ 잘못된 정보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근거)이 추가로 제시됩니다.
- ▶ 목적: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 방지
수단: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 강화

⑱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조건),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수단1)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조건) 사후에 정부(수단2)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

#목적/수단

- ▶ 공동 규제의 강화를 구체화합니다.
 - 목적: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 방지
 - 수단¹: 플랫폼 사업자 (자율)
 - 조건(미흡함) → 수단²: 정부 (규제)

선처리 vs 역이해

- ▶ 비판론이 정부 개입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먼저이고, 그것이 미흡할 때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비판론의 정부 개입은 조건부입니다. 여기서 12번의 ④번 선지를 미리 읽어낼 수도 있고, 보고 복귀해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 5문단

⑲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 재판소의 ⑤ 실명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예시)

예시 # 연결

- ▶ 앞서 다룬 ㉠과 ㉡의 대립이 실제 현실(⑤ 실명확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줍니다.

⑳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결과)

- ▶ 다수 의견 = 위헌 = 제재(정부 개입) 반대
즉, 다수 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의 입장과 연결됩니다. 정보를 연결해서 쌓아갑시다.

㉑ 반면(역접)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대조)

- ▶ 소수 의견 = 자율 교정 불가 = 제재(정부 개입) 필요
친절하게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고 연결해 주었으니 ㉡의 입장으로 연결하고 쌓아갑시다.

㉒ 플랫폼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 ▶ 글을 마무리하며 논의의 의의를 되새깁니다.

10.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 정답해설

- ②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정부 개입)을 이론(㉠ vs ㉡)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화제의 확장, 비교/대조

1~2문단(경제/상거래에서의 정부 개입) → 3~5문단(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과 ㉡의 대조)으로 이어지는 거시적 흐름을 읽어냈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각 선지에서 말하는 중심 화제와 전개 방식이 지문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지문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다룰 뿐, 정보 비대칭 자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인식 변화를 시간의 흐름(통시적)에 따라 설명한 부분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지문이 아닙니다.
- ⑤ 여러 개념을 종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과 ㉡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비교/대조를 하고 있음을 5문단에서 보여줍니다.

11. 주요정보와 세부정보의 구별

■ 정답해설

- ③ 문장 ⑥에서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의도가 이용자에게 의해 쉽게 파악된다고 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지문독해 FRAME

인과

문장 ⑥에서 온라인 허위 광고가 왜 문제인지 그 원인(이용자가 알기 어렵다)을 정확히 처리했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지문의 '알기 어렵다'를 선지에서 '쉽게 파악된다'로 반의어를 사용해 바꿔치기한 함정입니다.

■ 오답해설

- ① 문장 ①에서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가 정보 비대칭을 유발한다고 했고, 문장 ②에서 이 상황이 역선택 문제로 이어진다고 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문장 ③과 ④에서 정부는 정보 비대칭 상황 해소를 위해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고 했으므로 지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④ 문장 ①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했다. 이는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문장 ⑧에서 비판론은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공동 규제에 한 축임을 보여주므로 적절합니다.

12. 비교/대조 후 기준점 잡고 내려오기.

■ 정답해설

- ⑤ 문장 ⑫에서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고 했고, 문장 ⑱에서 ㉡(비판론) 역시 공동 규제를 주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규제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양측 모두 ‘표현의 자유 = 기본권’이라는 공통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비교/대조 (공통점)

대립하는 두 입장(㉠과 ㉡)을 읽을 때 차이점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문장 ⑱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라는 공통 전제를 놓치지 않고 파악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공통점(‘모두’)

두 입장이 공유하는 대전제에 집중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은 문장 ⑪에서 진위나 가치 결정은 경쟁을 통해야 하며 정부 개입 반대를 주장합니다.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이라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 주장을 반대로 뒤집은 바뀐 치기입니다.
- ② 문장 ⑫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만을 기본권으로 보호합니다. 위험한 표현을 보호한다고 서술한 것은 지문의 한정적 범위를 왜곡한 범위 변경입니다.
- ③ ㉡은 문장 ⑮에서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된다고 보았다.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된다고 서술한 것은 사실관계를 선지에서 뒤집은 방향성 반대 오류입니다.
- ④ ㉡은 문장 ⑱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차단 조치해야 한다고 서술한 선지는 선후 관계의 방향성을 뒤바꾼 방향성 오류입니다.

13. 지문의 비교/대조와 연결!

〈보기〉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정보 비대칭 심화)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정보 비대칭 심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 검토 필요)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 실명확인 사건과 연결 가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와 연결)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 게시는 실명, ㉥ 위반 아님)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 위반 여부 검토 필요)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정답해설

⑤ 5문단 문장 ㉠에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해당 규정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플랫폼 B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규정에 근거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비교/대조

5문단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대립한다는 것을 처리했다면, 헌법 재판소의 최종 결론은 다수 의견임을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소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다수 의견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했다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조건부 적용

〈보기〉의 상황을 ㉠와 ㉡에 적용할 때, 각각의 규제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끌어내려와야 합니다. ㉠는 규제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는 헌법 재판소의 결론(위헌)이 기준이 됩니다. 〈보기〉의 상황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며 처리합니다.

■ 오답해설

- ① 2문단 문장 ㉠에서 ㉠의 규제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플랫폼 A는 게시 공간을 제공한 플랫폼 사업자이므로 ㉠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문장 ㉠에서 규제 대상을 머릿속에 남겨왔다면 바로 풀기!
- ② 2문단 문장 ㉠에서 ㉠의 규제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갑’은 식품 판매자로서 광고를 제작·게시한 정보 제공자에 해당하며, 현재 ㉠의 의무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문장 ㉠에서 규제 대상을 머릿속에 남겨왔다면 바로 풀기!
- ③ 3문단 문장 ㉠에서 다수 의견의 근거가 된 ㉠은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의견 간 경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을’이 주장한 △△법은 특정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에 해당하므로 다수 의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법 내용과 ㉠의 주장을 연결하는 추론이 필요하므로 복귀합니다.
- ④ 5문단 문장 ㉠에서 소수 의견은 허위·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이 게시자 이름을 달리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은 실명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왜곡 정보가 자율적으로 교정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수 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 정보이므로 복귀합니다.

● 라플라스 식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 도달한다.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계 수’로 표현된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 결정된다.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계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계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계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계 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1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액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②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표면적이 작다.
- ③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해야 한다.
- ④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 ⑤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1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 ② 작은 기포와는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 ③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④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문서를 인쇄하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나오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서,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인쇄하였다. 이 시점에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이후 세 달이 더 지난 후에도 문서를 인쇄해 보았다. (단,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 ①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 ②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가 더 커진 것이겠군.
- ③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변함이 없겠군.
- ④ 구입 당시와 달리, 두 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계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 ⑤ 구입 후 다섯 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파란색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올라오는
- ② ㉡ : 나타낼
- ③ ㉢ : 이루어진
- ④ ㉣ : 다다른다
- ⑤ ㉤ : 맞춤으로써

📷 2706 라플라스 식

글의 흐름을 통한 머릿속 축 설정

1문단에서 '라플라스 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2~4문단에서 이 식이 적용되는 사례들(폐포, 두 기포의 합쳐짐, 잉크젯 프린터)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5~6문단에서는 잉크젯 프린터의 안정적 인쇄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인 '오네소르게 수'로 넘어갑니다.

글의 큰 흐름은 '주요 개념(라플라스 식) 제시 → 여러 사례에 적용 → 새로운 개념(오네소르게 수) 추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축은 둘입니다. 전반부의 축은 라플라스 식, 즉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표면 장력에 정비례, 반지름에 반비례'라는 관계입니다. 후반부의 축은 오네소르게 수, 즉 '점도가 클수록 크고,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의 곱이 클수록 작다'는 관계입니다. 이 두 식의 비례 관계만 정확히 잡으면 사례들은 모두 이 축 위에서 처리됩니다.

구획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구획 1~4]는 라플라스 식과 그 적용 사례 구획입니다. 라플라스 식의 비례 관계를 머릿속에 단단히 넣고, 각 사례(폐포·기포·잉크 방울)는 이 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연결합니다. 세부 사례 내용은 선지화되면 복귀합니다. [구획 5~6]은 오네소르게 수 구획입니다. 네 요인(점도·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과 오네소르게 수의 관계, 그리고 안정적 인쇄 범위를 잡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례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 1문단

①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정의)인데 이(연결)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③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인과)

정의 # 화제 제시 # 인과

- ▶ 구형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형 = 표면적 최소 ← 표면 장력 때문' 이 정의와 인과를 잡고 갑시다.

③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조건)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④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조건 # 이미지화

- ▶ 압력의 균형 관계를 처리합니다.
 - 팽창시키는 힘: 내부 압력
 - 수축시키는 힘: 외부 압력 +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 ▶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크기가 유지됩니다. 조건을 제시했으니 분기가 갈라질 겁니다. 반대 추론을 해봅시다.
조건: 균형 → 크기 유지
반대 추론: 균형 X → 크기 유지 X

⑤ 이들(연결)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⑥ 표현할 수 있다. ⑥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상관관계)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상관관계)한다.

비례/반비례

- ▶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라플라스 식의 비례 관계를 시각화하며 처리합니다.
 - 내부·외부 압력 차이 \propto 표면 장력 (비례)
 - 내부·외부 압력 차이 \propto 1/반지름 (반비례)

→ 2문단

⑦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추가) 유용하다. (사례①)

사례

- ▶ 라플라스 식의 첫 번째 적용 사례, 폐포입니다.

⑧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인과) 공기가 드나든다. ⑨ 이(연결)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이유)

인과 #연결

- ▶ ‘이’를 통해 연결하고 ‘때문이다’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해 납득합니다.
- ▶ 호흡의 원리: 압력 차이 → 공기 이동
- ▶ 이유: 공기 이동(압력↑ → 압력↓)

⑩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⑪ 그런데(전환) <지질과 단백질로 ㉔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인과) ⑫ 이에 따라(결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 ▶ ‘표면 장력 = 수축 압력 / 계면 활성제 → 표면 장력 낮춤 → 폐포 확장 쉬워짐’

선지화

- ▶ 계면 활성제가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다는 점, 표면 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처리해둡시다. ‘그런데’라는 접속사와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선지화의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14번 ④에서 묻습니다.
- ▶ 위계: 계면 활성제 (상위) = 지질(하위¹) + 단백질(하위²)

→ 3문단

⑬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추가) 도움이 된다. (사례②)

사례

- ▶ 두 번째 적용 사례, 두 기포의 합쳐짐입니다.

⑭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조건)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⑮ 이 결과로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결과)

- ▶ 중요한 것은 공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입니다. 라플라스 식을 적용해 추론해야 합니다.
- ▶ 기포 A + 기포 B → 기포 C (크기: $A < C$, $B < C$)

선이해 vs 역이해 # 반비례 # 연결

- ▶ 1문단의 반비례 관계를 끌어내려봅시다.
 - 전제: 두 기포의 구성 물질은 같음
 - 기포 반지름 ↑ = 압력 차이 ↑ (∵ 내부 압력 ↑)
 - 기포 반지름 ↓ = 압력 차이 ↓ (∵ 내부 압력 ↓)
- ▶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2문단 문장 ㉠에서 확인)
따라서 작은 기포(고압)에서 큰 기포(저압)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것이 ㉠의 원리입니다.
- ▶ ㉠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문제에서 물어볼겁니다. 이 사실을 눈치챘을 때, 지문 전체를 스캔해서 다른 기호 ㉡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비교를 물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호 밑줄이 딱 하나만 있기에 해당 밑줄의 이해 혹은 이유(전제)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 라플라스 식을 적용한 추론을 이렇게 미리 해두거나, 선지를 보고 복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 관계를 바로 엮어내서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15번을 보고 복귀해서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시간 단축과 인지적 부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 해설에서는 몰랐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4문단

⑯ 실생활에서 라플라스 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사례③) ⑰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⑱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 도달한다.

사례

- ▶ 세 번째 적용 사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⑲ 라플라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결)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 ▶ 잉크 방울도 구형이므로 라플라스 식이 적용됩니다.
개념 간 관계: 내부 압력 > 외부 압력
- ▶ 1문단의 압력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연결합시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라고만 해서 뭐가 크고 작은지에 대한 상황을 추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 5문단

㉑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한정)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부정)

전환 # 작은 흐름(보기 문제화)

- ▶ ‘~만으로 ~아니다’에 주목합니다. 라플라스 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㉒ 잉크 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소르계 수’로 표현된다.(정의) ㉓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 새로운 개념, 오네소르계 수입니다. 결정 요인 네 가지(점도·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를 파악해봅시다.
- ▶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엮일지, 비례일지 반비례일지 등 모든 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요 정보로 판단해서 들고 내려온 ‘표면 장력’에 대한 것부터 파악하려고 노력해봅시다.

㉔ 점도란(정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㉕ 오네소르계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비례)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반비례) ㉖ 따라서(인과)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㉗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 ▶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오네소르계 수의 비례 관계를 시각화하며 잡읍시다.
 - 오네소르계 수 \propto 점도 (비례)
 - 오네소르계 수 $\propto 1/(\text{표면 장력} \times \text{밀도} \times \text{노즐 지름})$ (반비례)

작은 흐름(보기 문제화)

- ▶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은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기> 계산 문제(16번)에서 문기에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 이 지문은 잘 쓰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시험지의 지문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평가적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이 잘 흘러가다가 뜬금없이 각종 세부정보와 복잡한 관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화하겠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6문단

㉔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조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

일반 # 조건

- ▶ 안정적 인쇄의 조건을 파악합니다. 단, 수치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부 정보입니다.

㉕ 가령(예시) 점도가 커서(특수¹)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조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㉖ 이와 반대의 경우,(대비) (특수²)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일반/특수 # 예측

- ▶ 범위를 벗어난 두 경우를 대비하며 처리합니다.
 - 일반: 0.1~1.0
 - 특수1: 0.1~1.0보다 큼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함
 - 특수2: 0.1~1.0보다 작음 위성 잉크 방울 생겨 오염
- ▶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응쌍 '일반/특수'와 '이와 반대'입니다. 당장 앞 문장 ㉔에서 '일반'에 대해 제시했기에, 뒤에서는 특수한 무언가를 논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특수¹'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와 반대'에 집중했다면 바로 이 뒤에는 '특수¹'과 반대되는 '특수²'가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㉗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 오네소르게 수가 결정되면(조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 5~6문단을 정리하는 마무리입니다. 위의 세부적인 조건과 그 분기를 처리하며 완급조절을 한 뒤, 이 문장으로 정리하고 바로 문제로 가면 됩니다.

14. 세부 내용은 지문으로!

■ 정답해설

- ⑤ 4문단 문장 ⑰에서 노즐은 잉크를 분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로 만드는 역할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것(3문단 ㉠)과 잉크 방울 분사(4문단)는 별개의 사례인데, 이를 뒤섞어 만든 선지입니다.

● 지문독해 FRAME

분류

라플라스 식의 여러 사례(폐포·기포·잉크 방울)를 각각 분류해서 별개로 처리했다면, 서로 다른 사례를 섞은 선지를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각 선지가 지문의 어느 문장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며 처리합니다.

■ 오답해설

- ① 1문단 문장 ②에서 구형은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일치입니다. 주요 정보 관련 선지는 바로 판단합니다.
- ② 1문단 문장 ②에서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일치입니다. 정의된 주요 정보관련 선지는 바로 판단합니다.
- ③ 2문단 문장 ⑧에서 폐포 내부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 압력의 차이로 공기가 드나든다고 했습니다. 호흡에 압력 차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판단합니다.
- ④ 2문단 문장 ⑪에서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활성제가 표면 장력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문장 ⑩)이므로, 지질은 그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출제 예고의 지표를 통해 계면활성제의 구성과 역할을 머릿속에 남겨왔다면 바로 판단합니다.

15. 흠어진 정보의 재조직!

■ 정답해설

- ④ ㉠의 공기 이동 방향부터 추론해야 합니다. 1문단 문장 ⑥의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압력 차이는 반지름에 반비례하므로, 작은 기포는 내부·외부 압력 차이가 크고(내부 압력 높음) 큰 기포는 압력 차이가 작습니다(내부 압력 낮음). 공기는 압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2문단 문장 ⑨)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공기가 이동하고, 그 결과 처음의 큰 기포보다 반지름이 더 큰 기포가 만들어집니다(문장 ⑮). 다시 라플라스 식을 적용하면, 반지름이 가장 커진 새 기포는 처음의 큰 기포보다 내부·외부 압력 차이가 더 작아집니다.

● 지문독해 FRAME

문제화된 개념의 재조직

지문 독해 단계에서 ㉠의 원리를 미리 엮어두지 못했다라도, 문제를 보고 복귀하여 1문단 문장 ⑥의 라플라스 식(압력 차이 $\propto 1/\text{반지름}$)을 적용하면 됩니다. 새 기포의 반지름이 가장 크므로 압력 차이는 가장 작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비례/반비례가 제시된 선지의 경우 선지의 반의어에 주의합니다.

■ 오답해설

- ①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1문단 문장 ⑥) 이 관계는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두 기포의 구성 물질이 같다면 표면 장력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기포의 압력 차이는 결국 반지름의 크기에 의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작은 기포는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크고, 큰 기포는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작습니다. 같은 외부 조건에 놓여 있다면, 작은 기포의 내부 압력이 큰 기포의 내부 압력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므로(2문단 문장 ⑨), 두 기포가 접하여 합쳐질 때 공기는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선지는 공기가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고 하였

으므로, 공기의 이동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라플라스 식을 적용해 방향을 추론해야 하므로 복귀해서 정보를 재조직합니다.

- ② 1문단 문장 ②에서 기포는 물방울, 비눗방울과 함께 구형을 이루는 대상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구형은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즉, '기포'는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대상이라는 상위 개념입니다. 이후 ①에서 제시된 작은 기포와 큰 기포는 모두 이 '기포'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이므로, 크기와 관계없이 표면 장력이 작용합니다.
- ③ 문장 ⑭에서 두 기포가 합쳐질 때 공기가 이동한다고 했는데, 공기 이동은 두 기포의 내부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2문단 문장 ⑨의 원리) 압력이 동일하다면 애초에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설명은 인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복귀해서 확인합니다.
- ⑤ '처음의 두 기포와 달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기포 역시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구형의 기포이므로, 처음의 두 기포와 다른 압력 관계가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1문단 문장 ③의 균형 관계를 따져보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같습니다. '달리'도 '크다'도 모두 어긋난 선지입니다. '달리'로 빠르게 판단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복귀해서 수식관계를 세우고 판단합니다.

16. 작은 흐름의 문제화.

■ 정답해설

- ③ 5문단 문장 ㉔에서 오네소르게 수는 점도가 클수록 크고,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고 했습니다.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 지름을 반으로 줄이면, 세 값의 곱은 그대로입니다. 점도도 유지되고 세 값의 곱도 변하지 않으므로, 오네소르게 수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비례 관계

문장 ㉔의 비례 관계에서 표면 장력·밀도·노즐 지름이 세 값의 곱으로 묶여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각 선지가 지문의 어느 문장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며 처리합니다.

■ 오답해설

- ① 6문단 문장 ㉖에서 안정적 인쇄 범위는 0.1~1.0입니다. <보기>에서 구입 직후 두 잉크 모두 정상 출력되었으니, 둘 다 이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귀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옳시다.
- ② 5문단 문장 ㉔에서 점도가 클수록 오네소르게 수가 큼니다. 빨간색이 끈적해진 것은 점도가 상승했다는 것이고, 노즐에서 안 나온 것은 오네소르게 수가 범위 위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첨가제로 정상화되었다면 이를 다시 범위 안으로 낮춘 것이므로, 더 커졌다는 ②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복귀해서 조건의 분기를 확인합니다.
- ④ <보기>에서 빨간색에 첨가제를 넣은 시점에 파란색은 구입 당시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쪽 정상이었으니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기>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 ⑤ 5문단 문장 ㉔, 6문단 문장 ㉖을 연결해야 합니다. 점도가 커지면 오네소르게 수가 커지는데, 위성 잉크 방울은 오네소르게 수가 범위보다 작을 때 생깁니다. 파란색이 더 끈적해졌다면 오네소르게 수가 커지므로 위성 잉크 방울은 생기기 힘듭니다.

17. 어휘 문제는 문맥으로.

■ 정답해설

- ① ㉔ ‘발생하는’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올라오는’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다’를 의미하므로, 표면 장력이 생겨난다는 문맥에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복귀

어휘 문제는 해당 문장으로 돌아가 문맥을 확인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문맥의 의미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 속 뉘앙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오답해설

- ② ㉔ ‘표현할’은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어 나타내다’의 뜻으로, ‘나타낼’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③ ㉔ ‘구성된’은 ‘여러 요소가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이루어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④ ㉔ ‘도달한다’는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의 뜻으로, ‘다다르다’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⑤ ㉔ ‘조절함으로써’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의 뜻으로, ‘맞춤으로써’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7년도 6월

- 문화

● 현대소설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 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량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량댁은 곧장 두칠이를 목메어 붙렸다는 것이다. 두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합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한 사람과 먼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㉔ 지난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㉕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잖으면 ㉖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들인강?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㉗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

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멧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로,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부드득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쿵! 내리 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부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A]

“웁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닫는다. ㉘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향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요——”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훑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㉙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아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델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쌍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 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 거 자식 잡아카라고 만든 줄 아냐?

㉠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 골무살 : '골목'의 사투리.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 ②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
- ③ 모랑댁은 두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
- ④ 마을에 온 양복쟁이는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들을 찾아다녔다.
- ⑤ 갑분이는 두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

19. ㉠, ㉡의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 ② ㉠은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 ③ ㉡는 적대적 인물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이 해소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의 능동성이 부각되는 나룻배와 차이가 있다.
- ⑤ ㉠의 시기에, ㉡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

20.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 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③ '손가락들이 제가꿈'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핏'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 ① ㉠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③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끼'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⑤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오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현대소설 해설

[18~21] 문제 조망하기

21번 <보기> '보기'
21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20번: 실시간 풀이 (구간 [A])
작품 독해 완료
19번: 독해 후 풀이 (기호 밑줄 비교)
18번: 독해 후 풀이 (인물의 사실관계)

2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보 기>**

이 작품에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진술과 그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진술이 인접한 경우가 있다. 이런 서술은 하나의 진술이 다른 진술의 의미를 보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감각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 ▶ 작품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파악합니다.
- ▶ 인물의 모습과 내면에 집중하는 독해를 합니다!

[장면1]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르는 양 생원은 절로 한숨이 쉬어졌다. 천달이뿐 아니라, 두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 ▶ 인물들이 제시됩니다. 일단 제시된 네 명의 중요도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양 생원'에게 초점화되었다는 겁니다.
- ▶ 인물: 양생원(부) → 천달이(자)
- ▶ 상황: 아들 천달이의 안부를 모름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 들었고, 희뜩희뜩 눈 잎사귀가 휘날려 왔다.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랑댁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 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랑댁은 곧장 두철이를 목메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 ▶ 눈이 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감각적인 묘사는 빠르게 완급 조절을 하며 넘겨버립니다.
- ▶ 모랑댁에 집중하면서 앞서 제시된 '두철이'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갑시다.
- ▶ 인물: 모랑댁(모) → 두철이(자)
- ▶ 상황: 두철이의 어머니인 모랑댁의 사망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먼 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난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묻힌 골무살*을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영장이 나왔던 것이다. 동식이와 수만이였다.

- ▶ 여전히 겨울입니다. 드디어 '삼바우'가 등장합니다. 강가에서 나룻배를 부리는 '사공'이죠. 앞의 순경과 양복쟁이들과 달리 이 인물에게 초점이 옮겨 갈 가

능성이 크니, 일단 비중 있게 잡아둡시다!

- ▶ ‘순경’과 ‘양복쟁이’는 마을 바깥에서 들어온 인물입니다. ‘또’라는 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 ‘순경’과 ‘양복쟁이’가 온 사흘 후, ‘동식이’와 ‘수만이’가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 ▶ 인물의 심리: 삼바우(놀람)
- ▶ 상황: 외부 권력이 또 마을에 들이닥침 → 삼바우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태워 줌 → 사흘 후 동식이, 수만이 영장을 받고 마을을 떠남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오고 얼마 후에 천달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천달이의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우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 ▶ 두칠이와 천달이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삼바우’에 집중하는 서술이 제시될 겁니다.

21.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① ㉠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와 함께 ‘우리 용팔이’라고 하며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인물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하여, 떠올린 대상에 대한 인물의 유대감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우리’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유대감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면2]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모통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까?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까?

- ▶ 깊은 감상까지 못 갔어도 괜찮습니다. 선지를 분절해서 작품과 대응하면 됩니다.
-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 묘사’ →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외면 묘사)
-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는 내면의 목소리’ →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까?’ (내면의 목소리)

- ‘떠올린 대상에 대한 유대감’ → ‘우리’ 용팔이의 ‘우리’에서 확인

교훈(최대한의 감상)

삼바우는 두 그림자를 보고 곧장 ‘용팔이’와 ‘동식이’를 떠올립니다. 정체도 모르면서 떠나간 이들을 먼저 떠올린다는 건, 그만큼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보고 싶은 사람을 본 겁니다. 그렇기에 ㉠번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게 이해하며 갈 수 없었다면, 문제의 선지를 활용하며 가야 합니다.

21.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②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상대를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며 상대의 이동을 ‘가까워지는데’로 표현하여, 인물의 공간 감각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서술의 초점의 대상이 된 인물을 체크하며 공간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렇잖으면 ㉡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우는 두 눈을 곧장 껌벅거리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라도 수만이라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 ▶ 서술의 초점의 대상이 된 인물인 ‘삼바우’의 시선에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번도 적절합니다.
- ▶ 사실의 인지: 용팔이, 동식으로 착각(X) → 순경, 양복쟁이로 인지(O)

21.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③ ㉢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과 반감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 앞의 선지를 판단하며 계속 서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은 ‘삼바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의 ㉢을 볼 때 삼바우의 행위(부들부들)에서 호기심과 반감이라는 심리가 도출되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 ▶ 삼바우는 ‘이크!’ 하며 이들이 ‘또’ 누군가를 데려갈 것임을 직감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호기심은 없습니다. 이미 사실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라는 원망, ‘입술도 부들부들’ 떨고 ‘어금니를 문는’ 모습에서 권력에 대한 분노·반감이 폭발합니다.
- ▶ 사실의 인지: 용팔이, 동식으로 착각(X) → 순경, 양복쟁이로 인지(O)
- ▶ 인물의 반응: 삼바우(반갑지 않음 → 원망, 분노, 반감)
- ▶ 호기심은 ‘모를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삼바우는 이미 정체를 ‘인지’했으니 호기심은 존재하지 않고, 남은 건 분노와 반감뿐입니다. 따라서 ‘호기심’을 끼워 넣은 ③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③

교훈(최대한의 감성)

서사에서 인물의 정서를 판단할 땐, 그 인물이 대상을 ‘아직 모르는 상황’인지 ‘이미 인지한 상황’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선지에 ‘호기심’이 보이면 확인할 지점은 하나입니다. 해당 지점이 ‘미인지 상황인가?’입니다. 만약 인지 완료 뒤라면, 호기심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구간 [A]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웁지!”

삼바우는 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20. 구간 [A] 실시간 풀이

- 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 앞에 제시된 삼바우의 심리인 ‘분노와 반감’에 집중했다면, ‘안 돼!’에서 고조된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도 그 감정에서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답: ①
-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 인과가 거꾸로입니다. 선지 오류의 원칙 중 ‘방향성’입니다. 상대가 ‘또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워진 것이 ‘원인’이고,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그 두려움이 드러난 ‘결과(신체 반응)’입니다. 결과를 원인이라 했으니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 손가락에 힘이 풀리는 건 오히려 ‘하는 수 없다’는 체념을 받아들이며 무력해지는 모습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응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예 반대로 바꿔치기해두었습니다.
- ④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 주는군.

- ▶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선지 오류의 원칙 중 ‘방향성’입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이 먼저, ‘희한한 생각’이 ‘뒤통수를 갈기’는 것은 그 뒤입니다. 뒤에 온 생각이 앞선 눈물의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눈물의 원인은 ‘하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주는군.

- ▶ ‘옹제!’와 함께 궁둥이를 ‘탁’ 치는 건 묘안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선지 ③번과 똑같이 정반대로 바꿔치기해두었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면3]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닳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배인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는다. ㉞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 ▶ [A]에서 떠올린 ‘희한한 생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배를 물고 가 버리는 겁니다.
- ▶ 인물: 삼바우(사공)
- ▶ 상황: 닳줄을 풀고 배를 몰아 ‘강 길을 끊어’ 버림 → 순경, 양복쟁이가 마을로 들어올 길을 스스로 차단

[장면4]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향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훑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㉞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꺾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쌍는다.

- ▶ 인물: 삼바우 vs 순경·양복쟁이(외부 권력)
- ▶ 상황: 강 건너에 묶여 발만 구르는 두 사람 vs 강을 끊고 비웃는 삼바우
- ▶ 심리: 삼바우(통쾌, 의기양양) vs 두 사람(당황, 분노)

21.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④ ㉞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콧방귀를 팡 꺾’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의기양양해 하는 인물의 심정을 독자도 느낄 수 있겠군.

- ▶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내면의 목소리) + ‘콧방귀를 팡 꺾어 준다’(외면 묘사)가 인접해, 권력을 따돌린 뒤 으스대는 의기양양한 심정을 독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저 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㉞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으스스 떨리어 왔다.

- ▶ 통쾌함이 정점에 달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나 ‘스스로 놀랄’ 정도입니다.
- ▶ 인물의 심리: 삼바우(통쾌함+불안)

21.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⑤ ㉞ :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으스스’ 떠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 행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과 불안을 모두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군.

- ▶ ‘흥! 안 되지 안 돼’(내면의 목소리)에는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이, ‘으스스 떨리’는 모습(외면 묘사)에는 그 결과를 떠올리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확신과 불안이 함께 제시되어 인물의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19. 기호 밑줄 선지를 통한 역이해

■ 정답해설

- ② ㉠가 떠올리는 ‘지난봄’이나, 순경과 양복쟁이가 들이닥친 ‘함박눈 덮인 겨울’은 모두 마을 바깥에서 위기가 닥친 시기입니다. 두 시기가 ‘외부에서 비롯된 위기’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시공간 배경

㉠는 시간, ㉡는 공간임을 먼저 파악하고, 각각이 무엇을(위기의 출처·행위의 주체) 보여 주는지 파악합니다. 처음부터 선지가 묻은 관계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선지를 보고 복귀해서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복귀

‘위기를 누가 일으켰나(외부)’, ‘끊은 행위를 누가 했나(중심인물 삼바우)’와 같이 선지에서 묻는 주체와 기능이 본문과 부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오답해설

- ① ㉠에서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강 길을 끊는 것은 반감을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지 ‘해소’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위기를 막은 것은 중심인물 ‘삼바우’이고, 그 수단이 바로 ‘나룻배’입니다. 주체도 내부를 외부로 바꿔치기 해두었고 나룻배와 대비된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는 ㉠의 ‘지난봄’이 아니라 현재(겨울) 일어나며, 끊은 주체도 적대적 인물이 아닙니다. 강 길을 끊은 것은 중심인물 ‘삼바우’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8. 인물별 사건의 사실관계

■ 정답해설

- ① 작품에서는 순경, 면 서기가 다녀간 사흘 후, 영장이 나와 동식이와 수만이가 마을을 떠났다고 서술합니다. 즉 순서는 ‘영장 → 떠남’입니다. ‘떠난 뒤 사흘 후 영장이 나왔다’는 서술은 순서의 방향성 오류입니다.

● 지문독해 FRAME

사건의 선후 관계

인물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사건의 순서, 인과’를 정확히 짚으며 읽습니다.

● 선지판단 FRAME

복귀와 선지의 방향성 판단

선지의 ‘시점, 순서, 인과’를 작품으로 돌아가 비교합니다. 특히 ‘무엇이 먼저인가’를 뒤집는 함정에 주의!

■ 오답해설

- ②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절합니다.
- ③ 모랑댁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서도 끌려간 아들 ‘두철이를 목메어 불’렀습니다. 끝내 만나지 못한 채 떠났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마을에 들어온 그들이 ‘아무개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골목을 돌아다녔다는 데서 확인됩니다. 적절합니다.
- ⑤ ‘두철이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갑분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절합니다.

● 현대시 수필 복합

(가)

한 해의 꽃잎을 ㉠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
 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릅드리 ㉡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물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
 었지요.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싯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나)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었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맴게 스며들었으리라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김기택, 「나무」 -

(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
 니까.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
 꾸시는 양을 뵈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
 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룻이
 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
 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 빛깔에 취
 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
 는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
 심을 뵈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웁니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이때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
 은 것이옵니다.

노인의 고담한* ㉥ 그늘에 어린 자손이 희희(戲戲)
 하며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낭낭거린다는 것은
 여년(餘年)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듯하옵니다.

㉦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
 다.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 호화롭고도 환황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웃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정지용, 「노인과 꽃」 -

- * 노래: '늘그막'을 점잖게 이르는 말.
- * 고답한: 예스럽고 맑은 느낌이 있는.
- * 노경: 늙음의 때 또는 노년의 경지.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③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리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⑤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패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 ③ (가)의 화자는 '눅된 나무'의 '멍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25.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군.
-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낡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27. ㉓와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㉓는 ‘늙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㉔는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이유이다.
- ② ㉓는 ‘늙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㉔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 ③ ㉓는 ‘늙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㉔는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이다.
- ④ ㉓는 ‘늙된 나무’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㉔는 ‘노인’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이다.
- ⑤ ㉓는 ‘늙된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㉔는 ‘노인’이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다.

26.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멈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 ② ㉒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 ③ ㉓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 ④ ㉔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 ⑤ ㉔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현대시+수필 해설
[22~27] 문제 조망하기

24번 <보기> '읽기'
23번: (나) 실시간 풀이 (구절 평가)
(나) 독해 완료
25번: (다) 실시간 풀이 (구절 평가)
(다) 독해 완료
26번: (가) 실시간 풀이 → (나)(다)관련 선지 판단 (기호 밀출)
(가) 독해 완료
27번: 독해 후 풀이 (기호 밀출 평가)
24번: 독해 후 풀이 ((가)(나) <보기> 구절 평가)
22번: 독해 후 풀이 (표현법 공통)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범주화 # 작품과 연결

- ▶ 공통점: 자연 = 교감과 관찰의 대상
- ▶ 차이점
(가) 교감 → 연민
(나) 관찰, 지각 → 힘들의 작용+역동적 시간

교훈<보기> 분석

<보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공통점/차이점의 경우, 왜 각 작품이 묶여서 한 세트로 제시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해석의 틀을 통해 붙여읽고 연결해봅시다!

23. (나)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① '자리이리라'에는 시련을 견뎌 내려 했던 '나무'의 시간과 경험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 대상인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제목의 대상 먼저 파악!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이리라

- ▶ '대패로 깎아낸 자리'의 무늬, 즉 나이테를 보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 단단한 흔적을 겨울이 지나간 자국으로 읽어 내죠. 나무가 겨울을 견뎌 낸 시간과 경험이 흔적으로 남았다는 인식입니다. <보기>의 '표면적 관찰 → 힘, 시간의 지각'에 연결됩니다. '나이테'에서 시간이, '단단한 흔적'에서는 대상에 갖든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나무 = 나이테(시간), 단단한 흔적(힘)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이리라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리라

- ▶ 봄, 여름엔 꽃과 잎이 드나들던 틈과 통로가, 겨울엔 딱딱하게 오므려 추위를 막아 냅니다. 그래도 두꺼운 껍질이 끝내 견디지 못해 '거칠게 갈라'지죠.

실시간 풀이 (23번)

- ▶ 23번의 ①의 '갈라진 자국'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시련(겨울)을 견뎌 흔적이라는 인식, 선지가 물어본 그대로네요.

23. (나)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② '스며들었으리라'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 대상인 '나무'를 기준으로 '내부/외부'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갑시다.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였으리라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 ▶ 겨울엔 자양들이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 '추위의 난폭한 힘'이 껍질을 뚫고 수액 깊이 스며들죠.

범주화(기준: 나무)

- ▶ 외부: 거대한 힘 = 난폭한 힘 = 추위
- ▶ 내부: 자양들, 수액
- ▶ '추위의 난폭한 힘'(모진 기운)이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액 깊이 '맵게 스며들'었다고 했으니, 모진 기운이 수액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은 적절합니다.

23. (나)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③ '익어갔으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를 맺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 대상인 '나무'를 기준으로 '내부/외부'라는 범주를 설정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무의 외부의 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외부의 힘이 부정적 결과를 야기 했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 겨우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 ▶ 동사부터 봅시다. '익어갔다'는 '성숙, 완성'을 향하는 긍정의 방향입니다. '부정적 결과'와 애초에 충돌합니다. 만약 이렇게 읽어내지 못했다면 '와'를 통해 관계를 설정합니다.
- ▶ '와'에 집중합니다. '독한 향기'는 '푸르고 진한 빛'

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푸르고 진한 빛'이 긍정적 시어인 이상, 같은 자리의 '독한 향기'도 긍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푸르고 진하다는 것이 긍정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판단을 보류한 후 뒤까지 읽어보고 돌아오세요.

- ▶ 외부의 힘(추위)은 시련이었지만, 겨우내 언 것을 지나 결국 긍정적 결실로 전환됩니다. 선지는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③

23. (나)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④ '이르렀을까'에는 시련이 수많은 '잎과 꽃'이라는 성취에 선행되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 선: 시련 → 후: '잎과 꽃' 임을 파악하고, '잎과 꽃'이 앞서 판단한 '푸르고 진한 빛'과 같은 결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㉔ 봄에 이르렀을까

- ▶ '해마다'와 '이 무늬'에서 시간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봄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련의 흔적인 '무늬'를 '거쳐서야' 비로소 '잎과 꽃'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곧 시련(무늬)이 성취(잎과 꽃)에 선행합니다.
- ▶ 이 '잎과 꽃'은 선지 ③에서 본 '푸르고 진한 빛'과 같은 결실입니다. 겨울을 통과한 끝에 맺는 긍정적 '성취'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적절합니다.

23. (나)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⑤ '흘러다니고 있다'에는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 정적 이미지인 '무늬'에 동적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운동성'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 ▶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이라는 비유에서 물

속 생명체를, '흘러다니고 있다'는 현재진행에서 멈추지 않는 움직임을 끌어냈어야 합니다. 죽은 사물이 된 나무의 무늬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다시 지각하는 겁니다.

- ▶ <보기>와 붙여읽어볼까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 → 새로운 지각'과 연결됩니다. ⑤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25. (다)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① '등이 곱고 숨이 차'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꾼다는 점에서,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군.
- ▶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노인'인가 봅니다. 반응이 적절한지 확인하러 갑시다. 선지를 사실과 평가로 나누어서 접근합니다.

(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니까.(노인이 꽃을 가꾸는 행위의 '보람'을 화두로 던짐)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시는 양(노쇠한 육체의 어려움에도 꽃을 가꾸는 노인)을 뵈오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맺으리라고 생각하오니, 희고 희신 나뭇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도소이다.(흰 수염·주름살을 '도리어 꽃답다'며 노쇠함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전환)

- ▶ 육체적으로 노쇠했음에도 공들여 꽃을 가꾸는 노인을, 흰 수염·주름살이 '도리어 꽃답다'며 아름답다고 합니다. 25번의 ①번은 적절합니다.

25. (다)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② 나이를 먹고도 '누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은 오로지 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정'함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군.
- ▶ '누추한 이들'과의 대비 속에서 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옵니다.(늙어서도 여색을 탐하는 부류 → '누추'하다는 평가) 빗칼에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쇠년(衰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심을 뵈오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웁니다. (여색이 아닌 꽃을 사랑하는 노인 → ‘거룩·정정’으로 상찬, 앞의 부류와 대비)

- ▶ 늙어 여색을 탐하는 ‘누추한’ 부류와 대비하여, 오직 꽃을 사랑하는 노인을 ‘거룩’, ‘정정’하다 평가합니다. ‘누추함’을 기준으로 범주화합니다. 25번의 ②번은 적절합니다.

25. (다)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③ 직접 심은 꽃나무에 맺힐 ‘꽃봉오리’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한 계절’을 보람 있게 여기고 있군.
- ▶ 노인이 ‘무엇을 보게 될지’와 그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확인합니다.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 처듯 할 것을 보실 것인데(손수 심은 것이 꽃봉오리로 피는 결실을 직접 ‘보게 될 것’임)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어 지나지 않은 것이웁니다.(그 결실을 보게 되므로 늘그막의 한 계절이 ‘헛되지 않다’ = 보람)

- ▶ 노인이 직접 심은 꽃봉오리를 보게 될 것이므로, 늘그막의 한 계절이 헛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25번의 ③번은 적절합니다.

25. (다)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④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그 꽃을 보며 즐기겠지만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이 끊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군.
- ▶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인지 확인해봅시다. 이 ‘우리’가 ‘슬퍼하는 주체’입니다.

㊸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꽃은 불변, 사람은 유한=대비) 만일 노인 백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심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

이다.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노인 사후, ‘우리(청춘)’는 슬퍼하며 그 꽃을 즐기지 못함)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슬퍼할 주체 = 청춘 / 노년은 슬퍼하지 않음) 분방히 끊는 정염이 식고(노년은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

- ▶ 본문은 ‘우리(청춘)가 슬퍼하고, 그 꽃을 즐길 수 없다’,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노년과 청춘을 범주화합니다. 슬퍼하는 쪽은 우리(청춘)입니다. 노인(노년)은 슬퍼하지 않죠. 그런데 ④는 ‘우리는 즐기고 노인은 슬퍼한다’로 주체를 바꿔치기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 ▶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라는 평가만 맞아 더 헛갈렸을 겁니다.

교훈(선지를 통한 독해)

선지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청춘과 노년을 나눠서 갖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찢어서 갈 수는 없기에 문제에서 묻는 부분에 대한 범주화가 필수적입니다.

25. (다) 단독,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 ⑤ ‘노년’이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라는 점에서, 노인이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 ▶ ‘노년의 덕’과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호화롭고도 핫 핫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롭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幽閑)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노년의 덕 = 학처럼 고고함 → 주검·꽃에 흔들리지 않음)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일까 합니다.

- ▶ 학처럼 고고한 ‘노년의 덕’을 지녔기에,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노경(노년)이라 평가합니다. ⑤는 적절합니다.

26.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① ㉠은 ‘여느 꽃나무’들이 성취로 빛나는 동안 ‘그 나무’는 멍칫거리고 있던 지체의 시간이다.

- ▶ 대상인 ‘여느 꽃나무’와 ‘그 나무’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시간입니다. 두 대상의 차이를 나누는 기준이겠습니다.

(가)

한 해의 꽃잎을 ㉡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멍칫거리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 ▶ 화자는 길을 건다가 벚꽃이 피는 계절에 꽃을 한 송이도 피우지 못한 늦은 나무를 발견합니다.
- ▶ 대상: 그 나무(늦음)
- ▶ 상황: 봄(시간), 벚꽃 가(공간)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 ▶ 화자는 ‘그 나무’를 보고 꽃을 못 피운 것에 부끄러워하며 그늘에 숨어있다고 의인화합니다.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물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 ▶ ①번에서 물어본 ‘그 나무’와 ‘여느 꽃나무’가 등장했습니다. 두 대상의 범주를 나눠봅시다.

범주화 (문제에 제시된 기준: 시간)

- ‘그 나무’ = 느림
- ‘여느 꽃나무’ = 느림X (빠름)
- ▶ 따라서 ‘여느 꽃나무’는 빠르고, ‘그 나무’는 느리게 26번의 ①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 ▶ ‘꽃불 성화’부터 봅시다. 늦된 나무가 언젠가 피을 꽃을 환하게 타오르는 성화로 비유했습니다. 남들 보다 늦었을 뿐이지 언젠가 환하게 타오를 존재로 묘사한겁니다.
- ▶ ‘-ㄹ 것이므로’에 집중합니다. 이 ‘늦된 나무’가 현재에는 꽃을 피워내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무조건 피워낼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 ▶ 그런데 화자는 대체 왜 이 ‘늦된 나무’에 주목하며 길이 끝난 줄도 모르고 보고 있었을까요?
- ▶ 화자: 대상(늦된 나무)에 집중함
- ▶ 대상: 늦된 나무 = 그 나무
- ▶ 상황: 길(공간)이 끝남

26.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② ㉣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 ▶ ‘왜 화자는 늦된 나무에 그토록 붙들려 있었나’ 그 의문이 여기서 풀립니다. 화자 자신이 ‘늦된’ 처지이기 때문이죠. 산에서 내려와 ‘두 달거리나’ 제자리를 못 찾고 헤맸다는 데서, 화자도 때를 놓치고 방황하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 ▶ 그래서 화자는 늦된 나무에 자신을 빗대어봅니다. (동일시) ‘늦깎이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 한다는 데서, 나무를 통해 자기 삶의 답을 구하려는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 ▶ 화자: 자신을 늦된 나무와 동일시
- ▶ 대상: 늦된 나무
- ▶ 상황: 두 달간 제자리 못 찾고 헤매(방황), 난만한 봄길(공간)
- ▶ 위에서 확인했듯 ㉣ ‘두 달거리나’는 ‘화자 자신’이

제자리를 못 찾고 해맨 시간(과거)입니다. 그런데 ㉔는 이를 '나무'의 시간으로, 그것도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될 준비의 시간(미래)'으로 바꿔치기했습니다.

- ▶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싯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 앞에서는 '타오를 것이므로'라며 확신했지만, 여기서 '매달까요?',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라며 조심스레 묻습니다. 확신에서 물음으로 바뀌었습니다.
- ▶ 화자: 늙은 나무(=자신)의 미래를 향해 소망 어린 물음을 던짐
- ▶ 대상: 저 나무
- ▶ 상황: 봄 → 여름 → 그 이후(시간의 흐름), 미래에 대한 전망
- ▶ 정서: 긍정적 전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소망

26.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 이미 읽은 자리로 돌아가, '어떤 성격의 시간인가'만 확인합니다.
- ▶ 사실 답을 ㉔로 고른 순간 나머지 선지는 해설지입니다.

㉓ ㉔은 나무의 안으로 '찾아 들어'온 '햇빛과 공기들'의 움직임이 멈추었던 기다림의 시간이다.

- ▶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이 ㉔ '겨우내 얼었다'가 봄에 '익어'간다고 했습니다. 얼어 있던 동안은 곧 움직임이 멈춘 채 봄을 기다린 시간이죠. 주체(나무 안으로 든 햇빛, 공기)도, 성격(멈춤, 기다림)도 일치합니다.

㉕ ㉔은 '딱딱하게 오므'렸던 '모든 틈과 통로'가 다시 '드나들며 숨쉬'는 생동의 시간이다.

- ▶ 겨울엔 틈과 통로가 '딱딱하게 오므'렸지만(추위를 막던 자리), ㉔ '봄'에 이르면 다시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정지(겨울) ↔ 생동(봄)의 대비에서 ㉔은 생동의 시간이 맞습니다.

㉖ ㉔은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이다.

- ▶ ㉔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꽃은 해마다 같은 모습으로 피고 진다는 데서, 피고 짐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반복의 시간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와 대비되어, '불변, 반복의 꽃 ↔ 유한, 변화의 사람'의 구도를 이룹니다.

27. 대상의 평가는 독해 후 맥락따라!

■ 정답해설

- ② ㉓는 ‘앞줄 아름다리’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로, 늦된 나무 주변의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㉔는 ‘노인의 고담한’ 그늘로, 노인에게서 비롯되어 이루어진 결과죠. 만든 주체인 주변 나무들과 노인도, 그것이 ‘결과(그늘)’라는 점도 모두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역이해

㉓와 ㉔는 둘 다 ‘그늘’입니다. ㉓는 앞줄 아름다리 나무들이, ㉔는 노인이 만든 그늘입니다. 선지가 물은 관계를 작품을 먼저 읽으며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지를 보고 복귀해서 판단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복귀

작품 독해를 하며 주체와 선후를 먼저 따져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선지가 물은 것을 들고 복귀해서 주체가 본문과 맞는지 판단합니다.

■ 오답해설

- ① 그들은 나무가 숨는 자리일 뿐 숨으려는 이유가 아니며(이유는 들킨 게 부끄러워서), ㉔도 그들은 장식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자손, 꽃이 어우러져 여년을 장식하는 무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그들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는 목적’도, ‘매년 달라지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봄이 더딘 건 나무의 처지일 뿐이고,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는 건 노화와 변화이지 의도된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㉓ 그들은 오히려 봄을 더디게 만드는 자리라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나무는 이미 부끄러워하며 그늘에 숨은 것이라 그들이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고, ㉔의 ‘희생’ 개념도 본문에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4. 구절 평가는 <보기>와 연결해서!

■ 정답해설

- ⑤ (나)의 ‘거대한 힘’과 ‘난폭한 힘’은 같은 대상입니다.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기울’었다고 한 그 ‘거대한 힘’이, 바로 다음 행의 ‘추위의 난폭한 힘’입니다. 따라서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별개의 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난폭한 힘(추위) 자체를 향한 것입니다. 같은 두 힘을 다른 대상으로 갈라 놓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기울임’은 외부의 힘을 지각하는 행위입니다.

● 지문독해 FRAME

대상

같은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하고, 처리하며 읽어야 합니다.

● 선지판단 FRAME

바꿔치기

운문 파트의 단골 함정 화자, 대상, 상황, 정서의 바꿔치기입니다. 같은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꿔치기했음에 주의합니다.

■ 오답해설

- ① (가)에서 ‘나’는 두 달거리나 헤맨 자신의 방향을 ‘그 나무’에 겹쳐 봅니다. ‘그 나무’가 화자의 상황을 환기하는 대상이라는 보기의 서술과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나)의 무늬는 ‘대패로 깎아낸 자리’에 드러난 목질과 나이테입니다. 이는 가구가 된 나무의 문양입니다.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라는 점에서 보기의 ‘표면적 관찰’에 해당합니다. 적절합니다.
- ③ (가)의 화자는 ‘멍울’을 보고 안쓰러움(연민)을, (나)의 화자는 ‘단단한 흔적(나이테)’에서 추위 같은 힘들의 작용을 지각합니다. (가)는 연민, (나)는 힘의 지각이라는 두 작품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 ④ (가)의 ‘푸릇한 잎새’는 ‘매달까요?’라는 물음에 담긴 화자의 기대와 바람이고, (나)의 ‘푸르고 진한 빛’은 겨울을 견딘 끝에 익어간 결실(시간)입니다. 각각 ‘바람’과 ‘겨울 후 맞이한 긍정적 시간’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합니다.

22. 표현법의 공통점.

■ 정답해설

- ① (가)는 ‘여느 꽃나무’의 성취와 ‘늦된 나무’의 지체를 대비합니다. 늦어도 끝내 피어나리라는 전망과 위로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나)는 꽃·잎이 드나들던 봄·여름과 ‘딱딱하게 오므’린 겨울을 대비해, 시련을 견뎌 낸 성숙이라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다)는 늙어 여색을 탐하는 ‘누추’한 부류와 오직 꽃을 사랑하는 ‘정정’한 노인을 대비하고, 꽃, 주검을 슬퍼하는 ‘청춘’과 그렇지 않은 ‘노년’을 대비해, 노경에서야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세 작품 모두 ‘상황의 대비’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므로 적절합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세 작품 모두 대상을 관찰하고 성찰하며 의미를 드러냅니다.

● 지문독해 FRAME

복귀

선지가 요구한 바를 파악하고 복귀합니다. 처음부터 물어본 것들을 미리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 선지판단 FRAME

자명함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라는 선지는 자명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판단의 무게는 전적으로 앞부분, ‘상황의 대비’에 실립니다. 뒤가 자명할수록 앞의 방법이 세 작품에 ‘모두’ 성립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 오답해설

- ② 공간의 이동은 세 작품 모두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는 한 그루 나무 앞에 ‘멈춰 서’ 머물고, (나)는 가구가 된 나무의 무늬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며, (다)는 노인의 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간 이동에 따른 대상의 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③ 계절감은 나타나지만 세 작품 공통의 ‘애상적 분위기 고조’로 묶기 어렵습니다. (가)는 늦된 나무에 대한 기대와 전망으로, (나)는 시련을 견딘 결실로 나아가고, (다)도 노년을 예찬하는 쪽이라 애상에 잠기지 않습니다.
- ④ ‘말을 주고받는’ 대화 방식은 세 작품에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와 (다)는 ‘-지요’, ‘-옵니다’ 같은 말을 건네는 방식일 뿐 상대의 응답이 오가지 않습니다.

● 고전소설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 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흥계를 알리오. 상하노 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각 성내어 왈,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 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애걸할 따름 이рода.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절의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신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젓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높은 피에 올라 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길동이 웃어 왈,

“대장부 그만한 재주 없으면 어찌 장사라 칭하리오.”

하고 잔치를 즐긴 후에, 훔쳐 온 재물을 헤아려 분즉 수만금일러라. 모든 도적에게 각기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어귀에 별호를 활빈당이라 칭하고 하령하여 왈,

“조선 팔도로 다니며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거든 재물 주어 구제하되 성명을 통치 말고, 열읍 수령 중 백성을 착취하여 얻은 자의 재물을 탈취하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팔도에 혼란을 초래한 길동은 병조 판서를 제수받아 서자로서의 한을 풀고,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난다.

차설.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일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십만이고 보군이 십만일러라. 일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울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밀듯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이 없더라.

각설.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고 울도국 왕에게 격서를 전하니라. 울왕이 뜯어 보니 하였으되,

“조선국 활빈당 장수 홍길동은 울왕에게 말하느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이러하므로 성탕이 곁을 치시고 무왕이 주를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뗏뗏한 일인 고로, 내 의병을 일으켜 한복소리에 칠십여 성을 항복받아 위엄을 뵈나니, 울왕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만일 항복하면, 조상 향화를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부귀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 않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재삼 생각하여 하라.”

하였더라.

왕이 문무제신을 모아 의논하여 왈,

“무명 소적이 이렇듯 방자하니, 뉘 능히 내 근심을 덜리오?”

하되, 제신이 아뢰어 왈,

“대왕이 한때의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오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왕이 크게 노하여 왈,

“적병이 ㉠ 설 아래까지 미쳤거늘 어찌 저희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다리리오.”

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친히 대적하더라.

- 「홍길동전」 -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 ⑤ ㉡에는 도적들이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 ② ㉡는 ㉠과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 ③ ㉡는 ㉠과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④ ㉠과 ㉡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이다.

30. 다음은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속임수로 상대를 속이는 ‘속임수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속이는 이, 속는 이, 속이는 의도, 속이는 방법, 속인 결과’가 포함돼요. ‘속이는 방법’은 ‘속이는 이’가 ‘속는 이’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하는 것을, ‘속인 결과’는 ‘속이는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속임수담이 나타난 장면인 [A]에 대해 이해한 바를 말해 볼까요?

학생 : _____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울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울도국 정벌을 단행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안정적인 나라를 침략하여 욕망을 실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길동이 정벌에 대한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하는 것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길동이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성탕’과 ‘무왕’의 일을 인용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내세운 정벌의 명분이 역사적 사례와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길동이 자신에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울도국 왕에게 주장한 것에서, 주인공의 정벌에 하늘의 뜻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길동이 울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에서,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이 마땅하다는 인식이 울도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고전소설 해설**

[28~31] 문제 조망하기

30번 <보기> '보기'
31번 <보기> '읽기'
28번: 실시간 풀이 (기호 밑줄 평가)
25번: (다) 실시간 풀이 (구절 평가)
30번: 실시간 풀이 (<보기>+구간 평가)
독해 완료
29번: 독해 후 풀이 (기호 밑줄 비교)
31번: 독해 후 풀이 (<보기> 구절 평가)

— **<보 기>** —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울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 인물: 길동(울도국의 왕이 됨)
- ▶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이본'입니다. 기존의 우리가 알던 홍길동전과는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서술보다 후자의 서술이 강조되었으니, 후자와 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①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군.
- ▶ 주체인 '길동'에 집중합니다.

[장면1]

그날에 길동이 도적을 데리고 분부하여 왈,
“내 금일 절에 가 ㉠ 여차여차하여 모든 중을 결박

하거든 너희 등은 그때를 당하여 일을 행하라.”
하니, 모든 도적이 영을 기다리더라.

- ▶ 길동이 무언가 일을 꾸밅니다. 그 전말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절'과 '모든 중'을 통해 어렵듯이 추측만 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길동이 도적에게 명령을 내리는 입장입니다.
- ▶ 인물: 길동, 도적
- ▶ 상황: 길동과 도적들이 일을 꾸밈
- ▶ 길동이 '모든 중'을 결박할 때, 승려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엄밀하게 판단 불가합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면 충분히 허용가능합니다.

[장면2]

이때 길동이 수십 종자를 데리고 해인사에 올라가 노승더러 왈,
“전에 백미를 보내어 술과 밥을 갖추라 하였더니 어찌하였는고?”
승려들이 고왈,
“이미 준비하였사오니 처분을 내리소서.”
길동 왈,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 ▶ 길동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 합니다. 장면1에서 제시된 ㉠의 구체적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승려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 이게 결박을 위한 포석입니다. 따로 흩어져 있으면 한꺼번에 묶을 수 없으니까요.
- ▶ 인물: 길동, 노승
- ▶ 상황: 길동이 앞선 계락을 위해 노승에게 중들을 모이게 함
- ▶ 앞서 '실전이라면 허용 가능'이라 미뤄 둔 ㉠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모이게 하는 것'은 ㉠에 포함됩니다. ㉠은 적절합니다.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② ㉠에는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되었군.

- ▶ 주체인 '길동'의 계략에 승려들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모래를 깨무는 것도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하니, 승려들이 어찌 이런 흥계를 알리오. 상하노소 없이 다 절 뒤 시내에 벌여 앉으니, 길동이 차례로 권하여 즐기며 웃고 잡담하다가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 길동이 왈각 성내어 왈,
“너희 등이 나를 쉬이 알고 음식의 부정함이 이렇듯 하니 통탄치 아니하리오.”
말이 끝나자 모든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하라 하며 호령하되,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
하니, 승려들이 몹시 놀라 뺨을 잃고 애걸할 따름이로다.

- ▶ 모인 승려들 앞에서 길동이 몰래 모래를 씹습니다. 그 소리에 승려들이 음식을 잘못 차린 줄 알고 사죄하자, 길동은 왈각 성내어 음식이 부정하다며 트집을 잡죠. 모래를 씹은 건 승려를 죄인으로 몰아 묶을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입니다.
- ▶ ②(①에 '모래 깨무는 것' 포함)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모래 씹기는 결박하기 위한 길동의 의도된 행위이니 ①에 포함됩니다. ②는 적절합니다.
- ▶ 길동은 그 구실로 '승려를 일시에 다 결박'합니다. ①(모이게 함) → ②(모래 씹어 트집) → 결박, 이 흐름 전체가 ㉠ '여차여차'입니다.

이때에 도적들이 절 어귀에 매복하여 있다가 모든 승려 결박함을 듣고 달려들어 재물을 제 집 재물같이 실어 나르니, 승려들이 다만 눈으로 보며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일러라.

- ▶ 길동이 승려를 묶자, 매복하던 도적들이 신호처럼 달려들어 재물을 쓸어 갑니다. 묶인 승려들은 보면서 소리만 지를 뿐이죠. 장면1의 사전 모의가 그대로 실행되는 대목입니다.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③ ㉠에는 길동이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하는 것이 포함되었군.

- ▶ ㉠은 길동이 절에서 '실제로 벌인 일(모이게 함 → 모래 씹어 트집 → 결박)'입니다. '본관에 고하여 엄벌하겠다'는 말은 승려를 결박하기 위한 협박일 뿐, 실제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길동'이 승려들을 묶은 것, 모래를 씹은 것, 결박한 것들은 전부 한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절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야 하는 데 본관에 승려들을 고발할 리가 없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연결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③

28. 기호 밑줄 실시간 풀이

- ④ ㉡에는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이 포함되었군.

- ▶ 앞선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합니다.

[장면3]

절의 나무하던 놈이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다가,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 담을 넘어 도망하여 합천 읍내에 들어가 도적 수백 명이 와 절 재물을 훔쳐 가는 ㉡ 사연을 고하니, 합천 군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관에 딸린 관리들과 읍의 노소 인민을 징발하여 급히 ㉢ 해인사로 몰아가니라.

- ▶ 작은 방에서 그릇을 옮겨 싣던 나무꾼이, 도적들이 우마를 끌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고는 담을 넘어 도망쳐 합천 읍내로 달려가 군수에게 고하죠.
- ▶ ㉡ '사연'은 곧 나무꾼이 '본 그대로' 군수에게 고한 내용입니다. 판단 기준은 '나무꾼이 목격한 일인가' 도적들이 들이닥친 일(㉣번)은 ㉡에 포함됩니다.
- ▶ 인물의 행위: 나무꾼(목격→고변), 합천 군수(출동)
- ▶ 상황: 나무꾼이 도적질을 목격 → 읍내 고변 → 군수가 관군 이끌고 해인사로 출동

교훈(실시간 풀이)

이렇게 기호 밑줄이 뒤의 구간[A] 앞에 몰려있다면, 해당 문제를 우선순위로 풀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만약 기호 밑줄이 구간의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면, 일단 기호 밑줄 유형을 처리한 다음 구간형 유형을 풉니다. 만약 이 방법론에 숙련이 되었다면, 앞의 기호 밑줄이 제시된 선지 일부분을 읽으며 푼 후 구간 [A]에 대한 독해와 풀이를 진행한 다음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 나머지 기호 밑줄 선지를 통한 독해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를 파악합니다!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 높은 뒀에 올라 보니 관군이 몰려 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30. 구간 [A] 실시간 풀이

-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 ▶ 속이는 의도는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는 것이라 했으니, 지문에서 길동이 무엇을 위해 속이는가(목적)를 찾아야 합니다. 이걸 기준 삼고 [A]를 읽어 갑시다.

- ▶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을 쓰고’(승려 차림) → ‘높은 뒀에 올라’(높은 곳) → ‘크게 소리하여’ 관군에게 외침.
- ▶ 선지에서 뽑은 요소가 그대로 대응됩니다. 관군을 속이려는 방법이 맞으므로 ②는 적절합니다.

[장면4] 구간[A]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로 가려 하거늘,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 대왈,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젖내 나는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 ▶ 도적과 재물은 남쪽으로 안전하게 빼돌리고, 관군은 북쪽으로 따돌리겠다는 목적. 이게 곧 ‘속이는 의도’입니다. ①은 적절합니다.

30. 구간 [A] 실시간 풀이

- ③ 길동이 도적들의 도주 방향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 ②를 판단하며 방금 그 대목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지문으로 눈 돌릴 필요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도적은 ‘남쪽 대로’로 갔는데, 길동은 관군에게 ‘도적이 북으로 갔다’며 북쪽 소로를 가리켰죠. 실제와 반대되는 거짓 도주 방향, <보기>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갖도록 조작’한 것이라 ‘속이는 방법’이 맞습니다. ③은 적절합니다.
- ④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 길동이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일’을 두고 관군에게 거짓 정보를 줬는가?를 파악합니다.

길동이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술법을 행하여 먼저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이윽고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들어와 길동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 왈,
 “장군의 신기한 술법과 거룩한 재주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리로소이다.”

30. 구간 [A] 실시간 풀이

- ② 길동이 승려의 차림으로 높은 곳에서 관군을 향해 소리친 것은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 ▶ 길동이 관군보다 높은 곳에 있는가, 소리를 쳐서

- ▶ ‘길동’은 ‘관군’을 북쪽으로 보낸 ‘뒤에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관군에게 준 거짓 정보는 ③에서 본 ‘도적의 도주 방향(북쪽)’이지,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간 건 그저 일을 마친 길동의 행동일 뿐입니다. 선지가 본문과 다른 내용을 ‘속이는 방법’으로 바꿔치기했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교훈(선지의 판단)

선지구성 원리 중 하나인 바꿔치기입니다. 운문이라면 화자, 상황, 대상, 정서의 바꿔치기를 통한 인지적 착각을 유도합니다. 또한 산문에서도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바꿔치기해서 함정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내에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은 후, 각 정보간의 관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지는 그 부분을 노린 함정 선지입니다.

-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과 재물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 ▶ 앞서 ‘관군이 쫓아가니라’에서 관군이 속아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이어서 ‘도적이 수천 우마를 몰고 마을 어귀로 들어와’ 도적과 재물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까지 확인됩니다. ①의 ‘속이는 의도’가 그대로 실현된 상태이므로 ‘속인 결과’가 맞습니다. ⑤는 적절합니다.

29. 기호 밑줄의 비교!

■ 정답해설

- ③ ⑥에서는 길동이 율왕에게 ‘격서(항복을 요구하는 글)’를 보내고, 율왕이 그것을 뜯어 보며 갈등이 드러납니다. 곧 ‘문서’를 통해 외부(길동)와의 대립이 표면화됩니다. 반면 ③은 도적이 들이닥쳐 재물을 실어 가는 탈취만 벌어질 뿐입니다. 애초에 문서가 오가지 않았으니 문서로 갈등이 드러날 일도 없습니다. ⑥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 지문독해 FRAME

공간

- ③은 재물이 넉넉해 도적의 표적이 된 ‘해인사’, ⑥은 정벌의 위협이 닥친 ‘율도국 성 아래’입니다. 둘 다 외부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라는 점은 같지만, 위협의 ‘방식’이 다릅니다. 선지가 묻은 차이는 작품을 읽으며 미리 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공간의 성격만 잡아 두고 갑시다.

● 선지판단 FRAME

복귀

작품 독해를 하며 주체와 선후를 먼저 따져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선지가 묻은 것을 들고 복귀해서 맞는지 판단합니다.

■ 오답해설

- ① ③은 재물이 넉넉한 곳이 맞지만, ⑥(율도국) 역시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달리’로 제시된 여유롭다는 차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⑥가 외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율왕은 ‘친히 군사를 징발’해 스스로 맞설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③에서 도적은 ‘재물’을 탈취할 뿐 절이라는 공간 자체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의 탈취는 ⑥(율도국 정벌)에만 해당하므로 ‘모두’라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③은 ‘노승, 승려’의 위계가, ⑥은 ‘율왕, 문무제신’의 위계가 분명한 공간입니다. 위계 없는 평등한 사회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1. <보기>와 작품 후반부의 연결.

〈보 기〉

「홍길동전」에서 주인공의 욕망은 울도국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다. 이 사건은 이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능하거나 부패한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왕이 되려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소원이자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들과 동격으로, 나아가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정답해설

- ⑤ 율왕은 길동을 ‘무명 소적(이름 없는 좀도둑)’이라 낮춰 부르고, 제신은 길동과 맞섰다 패할까 두려워 ‘성을 굳게 닫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동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일 뿐, 길동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울도국 안에서는 길동을 적으로 규정해 막으려 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

〈보기〉 붙여읽기

이 작품은 <보기>의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후자형입니다. 그렇다면 길동의 욕망에 어떻게 정당성을 입히는지를 찾고 연결해야 합니다. <보기>가 제시한 것은 세 개입니다. 공동체의 소원, 역사적 사례와 동격, 하늘의 뜻. 이 셋을 들고 본문을 읽읍시다.

● 선지판단 FRAME

연결

각 선지가 보기의 어느 장치에 대응하는지 짝지어 봅시다. ① 안정된 나라 침략(전제) ② 평생 소원(공동체) ③ 성탕-무왕(역사적 사례) ④ 천명(하늘의 뜻) <보기>의 틀(FRAME)에 대응됩니다. 이러한 선지들은 빠르게 판단합시다.

■ 오답해설

- ① 길동이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는 울도국을 정벌하는 것은, <보기>의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던 왕을 쫓아내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침략해 욕망을 실현하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합니다.
- ② 정벌의 뜻을 문자 장수들이 ‘평생 소원’이라 응합니다. 길동의 욕망이 그를 따르는 무리(공동체)의 소원과 맞물려 제시되는 것이므로, <보기>의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과 부합합니다. 적절합니다.
- ③ 길동은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며, 고사를 인용합니다. 자신의 정벌을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역사적 사례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이므로, 보기의 ‘역사적 사례와 동격’과 맞습니다. 적절합니다.
- ④ 길동은 항복하지 않는 것을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자신의 정벌을 거스르는 일을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하늘의 뜻으로 제시되어 정당성을 확보’와 부합합니다. 적절합니다.

● 고전시가 복합

(가)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A]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B]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입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입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C]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 봄바람을 희롱함.

(나)

시름을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 김수장 -

(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칙
 녁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칙이 낚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
 까지 조금도 빈틈 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
 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동 설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

32. [A]~[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입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입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입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A]에서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군.
-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다)에서 '침녕쿨'을 만물이 소생하는 '삼사월'의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군.
- ④ (가)에서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으로 입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군.
-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을 것이라고, (다)에서 '나'가 '침'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보여 준 것이군.



고전시가 복합 해설

[32~34] 문제 조망하기

34번 <보기> '보기'
32번: (가) 실시간 풀이 (구간 평가)
(가) 독해 완료
33번: (나) 실시간 풀이 (구절 평가)
(나) 독해 완료
(다) 독해 완료
34번: 독해 후 풀이 (<보기> 구절 평가)

<보 기>

이 시가들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각 화자는 현실에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고, 심적 상태를 형체가 있는 사물로 전환하여 정서를 강화한다.

- ▶ 참신성을 통한 '형상화'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주관적 인식'을 언급했으니 화자의 정서에 집중해야 합니다.

32. 구간 유형 실시간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 [A]에서 파악할 것은 화자의 대상(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 [A]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 ▶ '얼음 위 덧잎 자리'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입니다. 화자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임과 함께'라면 좋다는 것이지, 그 추운 조건이 '갖춰지길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화자가 기원하는 건 '정 둔 오늘 밤이 더디 새기를(임과의 밤이 길어지기를)'바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원'으로 본 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2. 구간 유형 실시간 풀이

② [B]에서 화자는,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다.

- ▶ [B]에서 '창문'이 매개가 되어 화자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가를 파악합니다. 대상에 집중합니다.

[B]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 ▶ 화자는 외로운 베갯머리에서 잠 못 들다 서창을 엽니다. 그러나 창 너머엔 시름없이 봄바람에 옷은 '도화'가 있을 뿐, 임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 ▶ 창은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하는 대상입니다. 임에게 속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②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2. 구간 유형 실시간 풀이

③ [C]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있다.

- ▶ [C]에서는 화자의 정서에 집중합니다. 자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 '넋이라도 함께'라 믿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약속을 어긴 이가 누구입니까)'에는 임을 향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탓하는 '자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③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 대상: 임
- ▶ 상황: 이별(그러나 여전히 사랑함)
- ▶ 정서: 원망('이별했음에도 사랑함')

- ▶ ①②③을 판단하며 [A], [B], [C]를 모두 읽었습니다. 남은 ④⑤는 바로 처리합니다.

④ [A]와 달리 [C]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 [C]는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원망'에 머물 뿐, 슬픔을 '극복'하거나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A]에서 화자는 춤터라도 만족할 수 있음을, [B]에서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 [A]는 얼어 죽을망정 임과 함께라면 좋다고 합니다. 즉 추위도 임과 함께라면 만족합니다. [B]는 봄이 왔어도 임이 없어 잠 못 이룹니다. 그렇기에 봄을 맞이하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적절합니다.

답: ⑤

33.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①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 들어 얹어 매고 둘러 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 화자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나)

시름을 꺼내 들어 얹어 매고 둘러 묶어

- ▶ '꺼내 들어 → 얹어 매고 → 둘러 묶어' 시름을 처리하는 동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행동의 연속적 과정이 맞으므로 적절합니다.

33.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② 색채 표현인 '푸른'을 통해 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 ▶ 시적 공간인 배경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푸른 강물에 풍덩 들입다 띄워 두면

- ▶ '푸른 강물'의 '푸른'은 색채어로, 시름을 띄워 보내는 공간(강물)을 시각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적절합니다.

③ 음성 상징어인 '풍덩'을 통해 대상의 무게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 '풍덩'은 묵직한 것이 물에 빠지는 소리·모양을 흉내 낸 음성 상징어입니다. '시름'이 강물에 던져지는 무게감을 실감 표현합니다. 적절합니다.

④ 상황을 가정한 표현인 '띄워 두면'을 통해 대상을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 ▶ '띄워 두면'은 '~하면'의 가정입니다. 시름을 강물에 묶어 띄워 보내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시름을 화자에게서 떼어 내 강물 위에 둔 것처럼 제시하죠. 적절합니다..

33. 구절 평가 실시간 풀이

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대상(시름)을 띄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대상의 상태에 집중합니다. 선지 내부에서는 대상의 '이리저리'와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그럴싸해 보입니다. 지문과도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으리라

- ▶ '이리저리'는 강물에 띄운 대상인 '시름'이 방향 없이 떠다남을, '절로 삭으리라'는 그 시름이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 ▶ 따라서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와는 무관합니다. 표현은 본문에 있으나 그 기능이 잘못됐습니다. 화자와 대상의 바꿔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⑤

(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칙녕
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칙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 ▶ 임은 ‘오리나무’, 나는 ‘칙녕쿨’이 되겠다는 가정입니다. 이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을 휘감고 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임과 한 몸으로 엮히고 싶은 마음을, 식물에 빗대 형상화한 겁니다.
- ▶ 화자: ‘나’ (표면적) = 칙녕쿨
- ▶ 대상: 임 = 금성 오리나무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엮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
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 ▶ 풀고 감고, 엮히고 틀어지고, 밑부터 끝까지 빈틈 없이, 밤낮으로(주야장상) 감기고 싶다 합니다. 과장된 사설의 열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임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설시조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동 선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 한겨울 모진 바람, 비, 눈, 서리를 다 맞아도 ‘떨어질 줄 있으랴(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겁니다. 의지적 태도가 느껴집니다.
- ▶ 정서: 임과의 영원한 결합에 대한 소망·확신
- ▶ 태도: 의지적

34. 기호 밑줄의 비교!**■ 정답해설**

- ④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임과 하나가 된 현재’입니다. (가)의 화자는 시름없이 봄바람에 웃는 ‘도화’와 처지가 대비됩니다. 임과 ‘이별’한 채 홀로 잠 못 드는 외로운 처지죠. 임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외로움의 정서가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다)의 ‘납거미’ 역시 임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소망, 가정’이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가 된 현재’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두 작품 다 ‘임과 하나가 된 현재’라고 볼 수 없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지문독해 FRAME**<보기> 읽기 vs 보기**

이 <보기>는 ‘보기’를 추천합니다.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고 화자의 정서와 상황에 집중한 독해를 하며, 대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독해는 선지를 보고 복귀하며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선지판단 FRAME**복귀**

선지가 짙은 표현을 들고 본문으로 복귀합니다. 표현은 대개 있을테니, ‘그 표현의 기능, 의미’가 본문 맥락과 맞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오답해설

- ①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 새기를 바라는 것은, 실제로는 흘러가는 시간을 주관적 인식으로 늦추려는 소망입니다. <보기>의 ‘현실에서 못 바꿀 상황(시간)을 주관적으로 변화’와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나)에서 ‘시름’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형체 없는 심적 상태(시름)를 묶고 던질 수 있는 형체 있는 사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기>의 ‘심적 상태를 사물로 형상화’와 부합하기에 적절합니다.
- ③ (다)에서 칙녕쿨을 ‘삼사월’의 것이라 한 것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인 봄이라는 정보를 덧붙여 임을 더 강하게 감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한 것입니다. 적절합니다.
- ⑤ (나)에서 시름이 절로 삭으리라 한 것도, (다)에서 ‘나’가 ‘칙’이 되어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 한 것도, 일상의 정서를 참신한 발상으로 형상화한 기법입니다. <보기>의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과 부합하므로 적절합니다.